

# 민주 '몸통 발인' 속도조절... '대포폰'에 화력 집중

### 박지원 "영부인 문제 이 정도로 끝내자"

### 홍준표 "검찰, 민간인 사찰 재수사해야"

'강기정 의원 발인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서며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4일에도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니면 말고 식" 구태 공작이 아니라면, 비겁하게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관련 자료를 증거든 내놔야 한다"며 "이도 저도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강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공작을 합작한 민주당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강 의원의 폭로에 대해) 상당한 백업자료를 갖고 있다"며 추가 의혹제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엄포를 놔지만 이날은 "자체할 필요가 있다"며 물러선 것이다.

실제 강 의원은 전날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한번 더 하고 싶다"며 추가 폭로 의사를 내비쳤으나 박 원내대표가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영부인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고 민안 필요하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5년간 대통령을 모셔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도 억울할 수 있다고 강 의원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과거 우리 쪽 영부인 두 분을 공격했지만 우리라도 자체할 필요

가 있으니 의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목회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우리가 대응할 것은 제 스스로 앞장서 대응하겠다"며 대응 변화 가능성도 열어갔다.

이 같은 민주당의 기류 변화는 강 의원 발인 파문에 다른 이슈들이 모두 묻히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 차원에서 대어(對輿) 공세의 최대 이슈로 삼으려

하는 '대포폰' 사건이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이날도 대포폰 사건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폭로한 이석현 의원은 의총에서 검찰이 청와대 설명만 듣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 행정관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다는 의혹 등 8대 의문점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이 범죄집단이다. 왜 자기들만 대포폰을 쓰느냐"며 "일반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은 '친서민', 대포폰을 쓰는 사람은 '반친서민'으로

규정하겠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BH(청와대)하방" 때도, '대포폰' 지급 사실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이를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재대로) 안 하고 축소되고 은폐됐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면 결국 정치권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년실업 간담회 갖은 손학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흥대 민들레영양소에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 등 학생, 청년단체 대표들과 청년고용정책, 실업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남뉴스

# "SSM 年 피해 1조8천억 허가제 즉시 도입해야"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틀째

국회는 4일 김홍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틀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대책, 지방재정 파탄, 농촌대책의 실효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대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동네 골목을 장악한 지 오래고 심지어 두부와 콩나물 시장까지 대기업이 점령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해 5년 동안 지방 세입이 총 30조 1741억원 감소한 반면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12조 2000억 원이 증가,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T/F를 설치, 지방교부세를 인상·2011년 예산에 목적예비비 1조원 이상 편성·기준보조를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7년말 353개에 불과했던 기업형 슈퍼마켓이 올해 6월말 현재 787개로 무려 2.2배 이상 폭증하였고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가 1조 849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기업형 슈퍼

마켓에 대한 허가제 즉시 도입, 상생법과 유통법 동시 처리 등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정부 예산의 총지출은 지난 10년간 6%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예산 증가는 3%에 그치고 있다. 특히 내년예산은 2.3% 증가에 그치고 있다.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도 8.3%에서 내년도 5.7%, 2012년도에는 5.5%에 그칠 예정"이라며 "특히 내년 예산 중 4대강사업, 저수지독농기사업 증가분 7364억, 농촌진흥청 이전사업비 1060억 제외하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4379억원이나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고 정부의 무심한 농촌대책을 꼬집었다.

그는 또 "살값 하락은 결국 지난 2007년 이후 대북 쌀지원이 중단된 이후 80만톤에 이르는 재고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며 "대북 쌀지원은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수해·기아로 고통받는 북한동포지원, 국내 쌀문제 해결의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 한 EU FTA로 자동차·전자 등 특정 대기업만 혜택을 볼 뿐 농업과 농어촌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FTA전문가위원회 구성, 농어촌 피해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권, UAE 파병 반대

### 국회 동의안 처리 진통 예고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계획을 놓고 여야 입장이 상반되면서 향후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UAE의 요청에 따라 군 병력 130여명을 파병하기로 한 데 대해 "해외파병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동의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당은 "원전 수주를 위한 패키지 파병"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번 파병은 비분쟁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해외파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쟁의 폐해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와 협력으로 세계 10대 무역강국 위치에 선 대한민국은 그 시야와 활동을 더 넓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익은 멀리 길게 봐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이나 돈에 국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신 안 된다. 넓은 여사에 입각해 국익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춘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평화유지 목적 외에는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 착공을 두달 앞두고 파병하자는 것은 너무 알파한 처사로, 언제부터 '수출에 끼워팔기' 국군이 됐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당 우위영 대변인도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해도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감안할 때 파병부대의 안전 문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그동안 원전 수주에 따른 파병을 없다고 전면 부인해오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해명하고 파병 요건을 투명하게 밝혀야 찬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손학규 대선 염두 몸 사리나

### 정국 현안 거리두기·FTA 재협상 침묵 당내 개혁·인적 쇄신도 기대 못미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취임 이후 정국 현안에 대해 일정 거리를 두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화두였던 당내 변화와 개혁과 관련, 구체적인 정책 변화와 인적 쇄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논평도 받고 있다.

4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손 대표가 취임 이후 민중들의 정국 현안에 대해 과감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손 대표는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로비 의혹 발인 파문'이 불거진 지난 1일 구미 KEC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당내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이틀날에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면책특권 발인'을 문제 삼아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원론적 언급을 내놨다.

그는 지난달 10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사망했을 때에도 양승조 비서실장을 통해 '대리조문'을 하려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계파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을 자제하며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역할 분담을 거론하고 있다.

국회내의 문제는 가끔씩 박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원외'인 자신은 현장 방문 등 대국민 행보를 통해 민주당의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손 대표가 너무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의 화두가 '변화와 개혁'이었는데 손 대표 취임 이후의 인적 쇄신과 당내 정책 변화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려 손 대표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과감한 변화보다는 당내 계파의 반발 등을 우려, 현상 유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손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당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내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며 "당내 계파 논쟁보다는 정국 현안에 대한 몸 사리기는 장기적으로 손 대표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전원별장주택**  
전남 보성 전원별장 주택 대지 350 견35 단층슬라브 창고30평 교통중요하고 조용하고 가격저렴 즉시 입주 가능 1억 주권적

**5000평**  
전남 보성 계획 관리 대로접 5000평 완전평지 현행과수원 아파트 빌라 연수원 귀농등 최적 개발업자 환영 3억 주권적

문의 011-837-3140

**신축 매매·임대 (원룸·투룸)**

원하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에서 이전까지)

주소	동구 계림동	남구 범림동
대지m2/형	294 / 88.94	383.1 / 115.89
대지m2/형	651 / 193	650 / 197

매매금액: 6억1천만원 (용자 1억 4천만원포함) / 7억9천만원 (용자 1억 5천만원포함)

건물내역: 원룸14개·투룸2개 4층 주인세대(최고급재), 풀옵션 "수익성최고!" / 1층, 상가점포 32칸 원룸 18개, 4층주인세대(아파트) 50평형, 옥실, 월물 최고급 자재) 풀옵션, "수익성최고!"

임대문의: \* 원룸: 보 200만원/월 30만원 / \* 투룸: 보 300만원/월 43만원(원, 투룸관리비포함) \* 풀옵션, 즉시입주가, 위치중요, 교통편리, 매매·임대 \* 치평동 상가 165㎡(50평) 현재 성업중, 매 5억6천만원

**장흥부동산 중개건설팀**  
TEL. 062-369-0347  
010-8625-3328 / 010-5050-8145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봉선동 The S1 더실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물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중개 문의환영!!  
봉선동 더실 아파트 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손해사정사**  
대 개강 11월6일(土)  
시험예정: 2011년 4월 24일(1차)

• 보험 계약 법(土)- PM 2~8시  
• 자동차보험이론(日)- PM 2~8시

**직업상담사**  
개강 12월 1일

**새롬행정고시학원**  
전대후문, 영진빌딩 5층 ☎ 268-8111~2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새롬행정고시학원 • 전대점 268-8111

**공인 중개사**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8일** 주간반 야간반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60명

합격: 을 원하신다면 한 수강료, 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서구청앞) 361-8111 전대점 (전대후문) 268-8111